

세월호 7시간·청문회 여론 ‘최후의 변수’

野, 與 ‘세월호 7시간’ 삭제 요청에 원안 유지 강행키로
청문회 증인 줄줄이 ‘모르쇠’…박대통령 전화설득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찬반 표결에 영향을 끼칠 막판 변수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키로 한 것을 두고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또 1·2차 청문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여론의 흐름이 새누리당 ‘부동층’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변수 부상=야권이 탄핵안에 명시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애초 야당은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참여를 유도하고자 물밑에서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손질에 90분을 허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을 탄핵안에서 빼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의원들이 있다”며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해

야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여론 흐름 주목=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보며 형성된 여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기금 출연에 대해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고 청문회에서 새로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으면서 현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주역들의 청문회 불참과 대기업 총수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 농단 관계자들의 ‘모르쇠’에 국민적 분노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표결 전날 박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경계가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전날 의총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오히려 예측이 불투명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찬반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나 기권에 나서는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야권에서 전략적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상을 뒤집고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선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증언대 선 장시호 손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뒤늦게 참석, 혼자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가결시 즉시 권한 정지…총리 대행체제

관저에서 생활…경호·의전 제공 신분은 유지

대통령 신분 변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남긴 7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어떤 신분상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은 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하는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가졌으며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고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청문회 ‘사이다 발언’ 김정진·윤소하

김, 모르쇠 일관 김기춘에 “죽어서 천당 못갈 것”

윤 “산재 피해자엔 500만원·정유라엔 300억” 이재용 질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회의 김정진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치밀한 조사와 차분한 질문 태도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김경환 민정수석의 비방론에 적힌 ‘인양하면 안 된다, 정부 부담 가중된다, 늦춰야 한다’는 글을 보여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날 1차 청문회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으로 부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또 손 회장에서서 “조 수석이 대통령 말씀이라고 했다. 재계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대통령이 특정 기업 부회장을 궁지를 몰라나라고 하는 건 겪어보지 못



김정진 윤소하

했다”는 답을 들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재벌 총수들이 증인을 출석한 1차 청문회에서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오 황유미씨에게 500만원(첫 제시액)을 내밀었고 정유라에게는 300억원을 내미는 게 삼성”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5일 기관보고에서는 “2015년 6월24일 의약품 관리대장을 보면 ‘사모남’이라고 적혀 있다”며 “직원은 아닐텐데 사모남이 누구냐”고 질문,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을 궁지로 몰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압도적 가결” vs “195명 부결”…여야 막판 수싸움

야 “230~250 기대”…여 주류 “野에 정권 못줘…표 이탈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여야 각 진영이 막판 표 계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탄핵안 투표권은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 등 국회 재적의원 300명에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만 ‘중립 의무’를 이유로 발의에서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 의장을 포함해

172명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2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관건은 야권 이탈 변수를 감안해 박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의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탄핵안 찬성에 적극적인 비주류는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

은 7일 YTN 라디오에 나와 “35명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다”며 “확실하게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 숫자”라고 밝혔다.

비주류 측은 친박(친박근혜)계 주류나 조·재선 중에서 무기명에 기대어 찬성할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찬성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야당에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촛불 민심’의 압박 덕에 230~250표에 이른 ‘압도적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결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무기명 투표가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주류 중진 의원은 “비상시국위 참여

의원 가운데 최소 10명은 ‘탄핵 반대’ 쪽으로 이탈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류 중진 의원은 “결과적으로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찬성 표결을 몇 명이나 할까”라며 비상시국위 소속 비주류 20여명을 더한 ‘195명 부결’을 예상했다.

야권 이탈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탄핵안 부결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도전에 유리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탄핵이 부결돼 정치권 전체가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 당장 혼란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미에 “어머니 이름으로 용서 못해”

박 ‘세월호 머리손질’ 맹비난

야권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청와대 관저에서 머리손질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뉴스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며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이 죽어가는데 머리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정신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는 모시고 살았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이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이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화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이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이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이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LPG충전소] 화순을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이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이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안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이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에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379㎡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안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안구 공원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정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